한국학연구 제64집 | 545~578쪽 | 2022.2.

# 개화기 서양인의 테니스 향유

이영호*

〈차 례〉

1. 머리말
2. 서양인의 테니스 도입
3. 서울유니온클럽의 테니스 활동
4. 서울-제물포의 테니스대회
5. 한국인의 테니스 수용
6. 맺음말

**[국문초록]**

한국의 테니스는 서양에서 직접 수입된 론 테니스와 일본을 통해 변용된 연식정구의 두 계통으로 병립했다. 개화기에 서양인이 먼저 론 테니스를 들여와 즐기고 식민지화가 되면서 연식정구가 보급되었다.

첫째 서양의 론 테니스는 초대 주한 미국 공사 푸트를 통해 소개되었다. 한국체육사학계의 통설인 개화파 김옥균 도입설은 근거가 없다. 푸트가 꾸민 한옥 미국공사관 정원에 론 테니스 구장이 처음으로 조성되었다. 조선정부의 첫 외국인 고문관 묄렌도르프도 테니스 코트를 만들었지만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 서양인이 정착한 서울 정동에는 테니스 코트가 여러 곳에 조성되었다. 1888년 결성된 서울유니온클럽은 미국공사관 앞의 공원부지에 테니스 코트 3개 면을 조성하여 회원들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는 스포츠로 테니스를 발전시켰다.

둘째 서양인이 많이 머물던 인천 제물포에도 일찍이 테니스 코트가 조성되었다. 1901년 결성된 제물포클럽 앞에도 테니스 코트가 들어섰다. 1902년부터는 서울과 제물포의 서양인들이 팀을 구성하여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거주 도시 사이의 테니스 대회를 통해 서양인들은 친목과 유대를 도모했다.

셋째 일본식 연식정구는 소모품인 테니스 공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말랑말랑한 고무공을 만들어 변용하면서 탄생되었다. 통감부 관리로 들어온 일본인들이 1908년경부터 한국에서 연식정구를 즐기기 시작했다. 이후 연식정구는 야외운동으로서 야구와 함께 널리 보급되었다.

개화기 서양인이 도입하여 즐긴 론 테니스는 한국 테니스 역사의 전사(前史)이면서, 다른

*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한편 장소성의 측면에서는 한국 테니스의 기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이 주체가 된 테니스는 론 테니스든, 연식정구든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주제어] 론 테니스, 연식정구, 김옥균, 푸트, 묄렌도르프, 서울유니온클럽, 제물포클럽

## 1. 머리말

한국의 근대문화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서양문화의 수입은 서양에서 직접 들어온 경로와 일본을 경유하면서 변용된 경로로 대별할 수 있다.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문화 전반에서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 근대 스포츠는 선교사 등 외국인과 그 교육기관에 의해 직접 수입된 경우가 많다. 축구・야구・농구 등 집단의 경쟁을 본질로 하는 구기 종목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1)]

테니스의 경우에는 서양에서 직접 들어온 '론 테니스(lawn tennis)'와 일본에서 변용된 뒤 도입된 연식정구(軟式庭球, soft tennis)의 두 계통이 병립했다. 시기적으로는 개화기에 론 테니스가 먼저 선보이고,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 및 식민지로 침략하면서 연식정구가 도입되었다. 근대 문물 수용의 두 가지 경로가 병립하고 또 경합한 것은 한국 테니스 도입과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론 테니스는 중세 유럽에서 유행하던 실내경기를 개량하여 1873년경 영국에서 옥외 잔디 경기로 개발되었다. 여성도 즐길 수 있어 짧은 시간에 확산되고 중산층 운동으로 대유행했다. 1877년 윔블던대회가 시작되고,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경기에서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일본의 경우 1878년 요코하마 외국인 거류지에 테니스 클럽과 코트가 처음으로 조성되었다. 물론 서양인이 주도한 론 테니스였다. 1879년 문을 연 체조전습소에서 미국인 교사 리랜드(G. A. Leland)가 일본사회에 처음 소개

1) 한국 체육의 역사에 대한 개설적 이해를 위해서는 이학래, 『한국근대체육사연구』, 지식산업사, 1990; 이학래 외(곽형기・이진수・임영무), 『한국체육사』, 지식산업사, 1994 참조.

했을 것이라는 설이 있지만 근거는 없다고 한다. 1886년 이 전습소를 흡수한 동경고등사범학교에 론 테니스부가 설치되었다고 하니 1878년 외국인이 즐기기 시작한 테니스가 일본인에게도 전파되다가 교육기관에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고가의 수입품인 테니스 공을 감당하기 어려워 고무공을 별도로 제작했다. 이것이 일본에서 변용된 테니스, 즉 연식정구다. 연식정구와 구별하여 론 테니스는 경식정구(硬式庭球)로 불렸다. 일본에서 국제대회를 겨냥하여 론 테니스를 본격 수용한 것은 1913년에 이르러서였다.[2)]

테니스 도입의 이중 경로를 강조했지만 사실 한국에 언제 테니스가 도입되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한국 테니스의 기원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먼저 서양인이 론 테니스를 어떻게 도입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테니스 코트를 어디에 설치하여 테니스를 소개했는지 정확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어서 서양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테니스를 즐겼는지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론 테니스와 연식정구가 한국인에게는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초기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테니스라는 스포츠를 통해 서양 문물의 도입과 향유, 정착의 양상과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개화기 서양인의 문화생활, 일상생활의 단면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2. 서양인의 테니스 도입

### 1) 개화파 김옥균 도입설 비판

테니스의 도입에 대해서는 칼럼니스트 이규태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장 유력한 통설로서 인정되어 왔다.

---

2) '日本テニスの歷史', 공익재단법인 일본테니스협회 홈페이지.

> 우리나라에 테니스를 처음 도입한 것은 미국의 초대 공사인 푸트에 의해서였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이 미국공사관 직원과 개화파 인사들은 테니스를 즐겼던 것 같으며, 특히 개화파의 지도자 김옥균은 테니스를 즐겨 화동(花洞)의 자택에다 홈 코트를 만들어 놓고 푸트 미국 공사 부처, 그리고 애스톤 영국공사 부처를 초대, 시합을 했을 정도였다. 당시는 테니스를 정구(庭球)라 하지 않고 척구(擲球)라 했으며 이 김옥균의 테니스 외교를 두고 보수 인사들은 "고균(古筠)(김옥균의 아호) 척구장에서 나라를 판다"는 악담까지 나왔던 것이다.[3]

즉 초대 미국 공사 푸트(Lucius H. Foote)가 테니스를 도입하여 개화파에게 소개했으며, 특히 김옥균이 서울 화동의 자택, 즉 오늘날의 정독도서관 자리에 코트를 만들어 놓고 푸트 공사 부부 및 영국 총영사 애스턴(William G. Aston) 부부를 초대하여 경기했다는 것이다. 이규태의 이러한 주장은 비판적 검토 없이 한국체육사학계에 그대로 수용되어 여러 논저에서 한국 테니스의 기원으로 서술되고 있다.[4]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조선과 미국이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것은 1882년 5월이고 푸트 공사가 서울에 정착한 것은 1년 뒤인 1883년 5월이었다. 애스턴 영국 총영사가 부임한 것은 다음 해인 1884년 4월이었다. 김옥균은 1884년 12월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뒤 일본으로 망명했으며, 푸트가 본국으로 돌아간 것은 1885년 1월이었다. 김옥균과 푸트 및 애스턴이 테니스를 즐겼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1884년 4월 이후 12월 사이가 될 것이다.

김옥균이 화동 자택에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 놓고 푸트 및 애스턴 부부와 테니스를 즐겼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김옥균의 기록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

3)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 1, 조선일보사, 1984, 287쪽.

4) 곽형기, 『근대 학교체육의 전개양상과 체육사적 의미』,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73~74쪽; 이인숙, 『대한제국기의 사회체육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88~89쪽; 이인숙, 「근대문학과 예술」, 『신편한국사』 45권 신문화운동 I, 국사편찬위원회, 2002, 368쪽; 김혜승, 「테니스(정구)」, 『서울체육사』 제1권 '체육의 역사', 서울역사편찬원, 2019, 231쪽. 그 외 테니스 또는 정구 관련 단체의 각종 홈페이지에도 근거 없는 다양한 주장들이 뒤얽혀 있다.

> 신력 10월(구력 갑신 9월) 30일 다케조에(竹添) 공사가 인천에서 경성으로 들어왔다. 외무독판 김홍집 및 협판 김윤식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함께 공사를 방문하자고 요청했다. 이날 나의 신축 운동장에서 척구(蹴球) 놀이를 즐기고, 만찬을 함께 했는데, 미국 공사 후르 부처, 영국 영사 아수돈 부처가 참석했다. 민당(閔黨)의 지도자들도 모두 와서 모였는데, 외무독판이 함께 다케조에를 방문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5]

김옥균이 남겨놓은 1884년 10월 30일 일기에 위와 같이 '척구(蹴球)' 놀이를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규태는 이 기록을 근거로 김옥균이 화동 자택에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 놓고 푸트 및 애스턴 부부와 '척구(擲球)'라는 테니스 경기를 했다고 주장한 것 같다.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첫째 푸트 및 애스턴 부부가 만찬에는 참석했지만 척구 놀이를 함께 했는지 불분명하다.[6] 갑신정변 직전 김옥균은 푸트 및 애스턴과 깊이 교류하면서 조선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다. 특히 푸트와 가까웠다. 1884년 10월 18일에는 푸트 부부가 공사관의 통역인 윤치호를 대동하고 김옥균·홍영식과 함께 박영효의 경기도 별장으로 나가 며칠 동안 배 타고 사냥하는 등 가을 소풍을 즐겼고, 미국 공사가 김옥균 등 개화파를 초대하여 접대하기도 했다.[7] 그렇지만 푸트 부부가 김옥균과 테니스를 즐겼다는 기록을 찾지는 못했다.

---

5) 金玉均, 『甲申日錄』. "余之新築運動場 設蹴球之戲 仍共晩食 美公使후르夫妻 英領事아수돈夫妻 赴會". 후르는 푸트, 아수돈은 애스턴이다. 척구 놀이에 대한 기록의 전후에 외무독판 김홍집과 협판 김윤식이 일본 공사 다케조에를 방문했던 이야기가 붙어 있다. 그들이 함께 일본 공사를 방문하자는 요청을 거절했던 김옥균은, 만찬 때 민씨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細註에 자세히 소개해 놓았다. 다케조에가 천하 대세를 청불 관계를 가지고 통렬하게 언급한 뒤, 김홍집에게 외아문 내에 '청나라 노예'가 많다고 추궁하고, 김윤식에게는 대놓고 차라리 청나라 가서 관리 노릇하라고 힐란했다는 이야기다. 일본의 힘에 의지하여 정변을 계획하고 있던 김옥균은, 만찬에 참여한 친청파인 민씨 보수파들이 분개하면서 언급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일기 세주에 그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던 것이다.

6) 윤치호 일기에는 10월 31일 오후 3시 미국 공사 부부가 김옥균의 집을 방문하여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오후 3시라고 했으니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송병기 역, 『국역 윤치호일기』 1, 1884년 10월 31일,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184쪽.

7) 『국역 윤치호일기』 1, 1884년 10월 18~20, 26일, 180~182쪽.

둘째 김옥균이 표현한 '척구(蹠球)'를 테니스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김옥균이 신축한 운동장도 테니스 코트라고 볼 수 없다. 이규태는 다른 글에서 관립외국어학교 출신들이 1897년 대한척구구락부를 만들어 축구 보급을 했다고 하면서 '척구(蹠球)'를 축구라고 하기도 했다.[8] 나중에는 자신의 동일한 책에서 '척구(擲球)'를 축구라고 하기도 하고 테니스라고도 하여 혼동하고 있다.[9] "관립한성고등학교 학원(學員)과 관립외국어학교 덕어부(德語部) 학원과 청년학관 학원 일동이 본일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야구경쟁회(野毬競爭會)를 개(開)한더다라"라는 1910년 신문기사의 제목이 '척구경쟁회(擲毬競爭會)'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10] 던질 '척(擲)자를 쓰는 '척구(擲球)'는 축구가 아니라 야구(野球)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김옥균이 언급한 '척구(蹠球)'는 무엇일까? 공놀이인 것은 분명한데, 당시 야구가 조선에 소개되지 않았던 때이므로 야구가 아닌 것도 분명하고, 테니스가 아닌 것 또한 분명하다. '척구(擲球)'라는 한자를 공을 던지는 운동으로서 야구라고 한다면, 공을 차는 운동 즉 축구(蹴球)는 한자로 '척구(蹠球)' 또는 더 분명하게 찰 '척(踢)'자를 써서 '척구(踢球)'라고 혼용했던 신문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11] 공을 차는 놀이는 인류역사상 일찍이 존재했고 그것이 스포츠화된 서양식 축구도 개화 초기에 소개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김옥균이 놀이한 '척구(蹠球)'는 축구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12]

---

8) 이규태, 『개화백경』 5, 신태양사, 1969, 376쪽.

9)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 1, 1984, 284쪽과 287쪽.

10)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20일, 잡보, '擲毬競爭會'.

11) 『대한매일신보』, 1909년 10월 20일, 잡보, '蹠球運動' – "본일 하오 3시에 大昌體育部와 청년회원諸氏가 연합하여 훈련원에서 蹠球運動會를 설행한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09년 10월 23일, 잡보, '척球後報' – "지난 일요일 오후 3시에 훈련원에서 청년회운동부와 대창체육부가 회동하여 제2회 척구경쟁회를 개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청년회운동부에서 우승점을 득하였다더라."
『매일신보』, 1915년 11월 30일, '踢球競爭會' – "금 30일 화요 하오 3시 30분에 훈련원에서 경신학교와 청년학관과 踢球競爭會를 한다더라."

12) 1906년 3월 11일 대한체육구락부를 조직할 당시 "蹴球를 競球, 踢球, 蹠球라고 불렀으며"라는 지적도 있다. 문영현, 「축구사 – 蹴球에 대한 史的 片貌」, 『학교체육』, 1966년 11월호, 대한학교체육회, 16쪽.

### 2) 최초의 테니스 코트는 어디에?

최초의 테니스 코트는 어디에 조성되었을까? 미국공사관을 방문한 미국 해군 군의관 우즈(George W. Woods)는 공사관의 정원에 테니스 구장이 있다고 1884년 4월 21일자 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13]

> 모든 화단은 타일로 둘러싸여 있으며, 기존의 관목에 더해 상당한 캘리포니아 장미 덩굴을 포함하여 많은 훌륭한 식물이 심어져 있었다. 여러 가지 개조 가운데 푸트 공사 부부는 잔디 테니스 구장(lawn tennis ground)을 조성했다. 그리고 근처에는 아름다운 탑과 같은 시설물이 있다.[14]

푸트는 정동 민영교와 민계호의 넓은 집을 사들여 공사관으로 사용했다.[15] 우즈가 목격한 것처럼 푸트 부부는 한옥을 공사관으로 개조하면서 정원을 꾸몄는데, 구내에 잔디 테니스 구장(ground)을 조성했던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1883년 5월 부임한 후 1884년 4월 21일 이전 어느 시점일 것인데, 1883년인지 1884년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1918년 간행된 푸트 부인의 평전을[16] 조사해보았지만 궁중이나 왕후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공사 부부의 일상생활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었다. 코트를 조성했으니 테니스 경기를 소개하고 즐긴 것도 푸트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조선인에게 전파되었다면 이규태가 주장한 것처럼 친밀하게 교제했던 김옥균 등 개

---

13) 온라인 상에는 부정확한 주장이 많은데, 문화콘텐츠닷컴 홈페이지의 『구한말 정동이야기』, '공사관의 정원' 항목에서 한국 테니스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14) Fred C. Bohm and Robert R. Swartout, Jr. ed, *Naval Surgeon in Yi Korea: The Journal of George W. Woods*,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4, 1884년 4월 21일, p.77. "All the flower beds are bordered with tiles, and, in addition to the already existing shrubbery, many fine plants have been set out, including a larger number of California rose-bushes. Amongst the numerous improvements, they have located a lawn tennis ground, and near it is a pretty pagoda-like buildings"

15) 이순우, 『정동과 각국공사관』, 하늘재, 2012, 125쪽.

16) Mary V. Tingley Lawrence, *A diplomat's helpmate: how Rose F. Foote, wife of the first U.S. Minister and envoy extraordinary to Korea, served her country in the Far East*, San Francisco: H.S.Crocker Company Publishers, 1918.

화파일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푸트가 1883~1884년 한옥으로 된 미국공사관 구내의 잔디밭에 조성한 테니스 코트가 최초일까?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유보조건이 있다. 1882년 12월 조선에 들어와 1885년 9월 이임한 조선정부의 첫 고문관인 독일인 묄렌도르프(P.von Möllendorf)도 테니스 코트를 조성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묄렌도르프는 1883년 4월 서울 전동(磚洞)의 대저택에 입주하게 되는데, 그의 부인은 "본래 두 채의 집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채 앞에는 넓은 빈터가 있었다. 후에 남편은 여기에다 테니스 코트 하나와 넓은 정원을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묄렌도르프는 건물을 여러 차례 개조하고 일본에서 정원사를 초빙하여 가꾸기도 했다 한다.[17] 묄렌도르프의 저택은 넓고 사진을 보면 넓은 잔디밭이 있어 테니스 코트를 충분히 만들만하게 보이지만, 고문관으로서 바쁜 일정 속에 어느 시점에서 정원을 가꾸고 테니스 코트를 만들었는지 확정할 수 없다.

미국에 이어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영국도 서울에 공사관을 열었다. 1883년 11월 영국은 중국 공사인 파크스가 조선 공사를 겸하게 하면서 애스턴을 총영사로 파견했다. 1884년 4월 부임한 애스턴은 현재의 영국대사관 일대에 정한 한옥 영사관에 머물렀다. 테니스는 당시 서양에서 인기 있는 중산층 운동으로 유행했다. 무료한 서울생활에서 일상생활의 활력소로 알맞은 스포츠였다.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다. 그렇다면 미국공사관을 본떠 그곳에도 테니스 코트를 만들었을까?

1885년 9월 중순 미국 북장로교 의료선교사 헤론(John W. Heron)의 부인이 테니스 공에 눈을 맞아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18] 1884년 가을 미국 북장로교 소속의 알렌(Horace N. Allen)이 입국하여 공사관 의사가 되고, 1885년 4월 5일에는 미국 북장로교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와 미국 북감리교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선교사가 제물포에 도착하고, 6월 20일에는 헤론 부부가 입국했다. 이들 선교사들은 모두 정동의 미국공사

17) 묄렌도르프 부부 지음, 신복룡・김운경 옮김, 『묄렌도르프 문서』, 평민사, 1987, 63쪽.
18) 김원모 완역, 『알렌의 일기』 9월 20일, 단국대학교출판부, 1991, 102~103쪽.

관과 연접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헤론의 편지를 보면, 1885년 9월 15일 자기 부인이 영국 영사 애스턴 부인을 방문했을 때 바로 옆에서 강타된 테니스 공에 눈을 맞아 몇 시간 동안 보지 못하는 사고가 일었났다고 한다. 의사인 알렌·헤론·스크랜튼이 치료했지만 시력을 회복하지 못할까 걱정되었다. 결국 상하이로 건너가 8일간 치료를 받고 돌아왔다.[19]

헤론 부인이 애스턴 부인을 '방문(call on)'한 곳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 한옥 영국영사관이라고 한다면,[20] 그곳에도 테니스 코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두 부인이 운동을 구경하면서 주변에서 환담하다가 강력한 스트로크로 날아온 공에 눈을 정통으로 맞았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영국영사관에도 테니스 코트가 있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1891년에 서양식으로 준공된 영국영사관(1898년 이후 영국공사관)에는 확실히 테니스 구장(lawn-tennis ground)이 조성되었다.[21]

1885년 여름, 남해 연안 최남단 거문도에도 테니스 코트가 조성되었다. 영국 해군과 해병대는 1885년 4월 15일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이후 1년 10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러시아가 동아시아 해역에서도 남하할까 우려하여 영국은 전략적 요충지인 거문도를 선제 점령했다. 1845년 영국 해군 사마랑호는 처음으로 거문도를 탐사한 뒤 해군성 차관의 이름을 따서 '해밀튼항(Port Hamilton)'으로 이름 붙였었다.[22] 거문도는 동도(東島) 약 100만 평, 서도(西島) 약 200만 평, 고도(古島) 약 33만 평의 세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군은 고도의 남쪽 산등성이를 깍아 주둔지를 건설했다. "나무로 지어진 임시막사가 세워지고 영국 해군은 유배 생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했다. 함대의 장교들은 삽과 곡괭이를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19) 김인수 옮김, 『헤론 의사의 선교편지』, 1885년 10월 26일, 쿰란출판사, 2007, 174쪽.

20) 이순우, 『정동과 각국공사관』, 140~151쪽.

21) Alfred E. J. Cavendish,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 Old and the New*,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893, p.30; 문화콘텐츠닷컴 홈페이지, 『구한말 정동이야기』, '영국공사관' 참조.

22) 이영호, 「거문도가 경험한 제국주의와 근대」, 『도서문화』 40,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6; 한승훈, 「변경의 접촉지대 삼도(三島), 그리고 거문도(巨文島)의 탄생」, 『조선시대사학보』 83, 조선시대사학회, 2017 참조.

곧 동아시아에서 영국이 소유한 것 가운데 가장 큰 테니스 코트를 소유하게 되었다."[23] "장교들은 점령한 첫 몇 달간 삽과 곡괭이를 어깨에 메고 테니스 코트를 건설했다. 그들은 자주 여가 시간에 테니스를 즐기며 지냈다."[24] 1886년 6월 21일 러시아 함선이 거문도에 입항했을 때 러시아군은 영국군의 안내를 받아 고도의 주둔군 숙영지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막사・식당과 함께 '론 테니스(Lawn Tennis)' 시설도 갖추어져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25] 거문도에 직수입된 것은 영국식 론 테니스였던 것이다. 고도의 언덕 위, 오늘날 거문초등학교 입구에는 '해밀턴테니스장'이 있었다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이상 몇 가지 사례에서 조선에 들어온 서양인들이 당시 유행하던 테니스 잔디 코트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조성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최초의 테니스 코트를 묄렌도르프가 만들었는지, 푸트가 만들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적어도 1884년 4월 21일 이전 푸트의 테니스 코트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일단 이것을 앞세울 수밖에 없다. 론 테니스를 중심으로 한 서울 정동의 테니스 코트와 운동은 비록 서양인이 중심이었어도 장소성(場所性)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 테니스의 기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 3. 서울유니온클럽의 테니스 활동

### 1) 서울유니온클럽의 결성과 테니스 코트

1886년에 개설된 교육기관 육영공원에는 헐버트(Homer B. Hulbert), 벙커(Dalziel A. Bunker), 길모어(George W. Gilmore)가 초빙되었다. 그중 길

23) S. J. Whitwell, "Britons i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41, 1964, p.54, 부록 Extracts from an Article by Surgeon A. G. Wildey, R.N. Appearing on Page 162 of The Graphic for 12 February 1887.

24) Robert Neff, "Life at Port Hamilton during the Preventive Occupation, 1885-87",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79, 2004, p.70.

25)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 Ⅰ(1854~1894), 6번 문서, 해외사료총서 12권, 국사편찬위원회.

모어는 1886년 7월 4일 조선에 들어왔다가 아들이 아프고 월급도 적다 하여 1889년 귀국했다. 그는 조선에서 보고들은 이야기를 잡지에 기고한 뒤 출판했는데, 그의 저작 가운데 다음과 같이 테니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 또 다른 대중적인 즐거움으로는 테니스가 있다. 외국인 구역은 대부분 우수한 테니스 코트를 가지고 있다. 부인들은 호스트가 되어 친구들을 게스트로 초대하여 오후를 즐겁게 보낸다. 오후 4~5시경 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는 더 일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후를 지루하지 않게 보낸다. 일반적으로 복식과 단체전에는 우호적이면서도 경쟁적인 정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스포츠 게임에도 이기려는 진지한 경쟁이 흥취를 돋군다. 9월 1일부터 대략 12월 1일까지 각주마다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그런 날씨는 정말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기온은 8월 한여름의 더위로부터 기분이 좋을 정도로 시원하게 된다. 기온이 점차 떨어짐에 따라 격렬한 운동이 증가하지만, 비바람 때문에 운동하기 적합하지 않은 그라운드 사정은 거의 없다. 필자는 3월 15일부터 그라운드가 얼어붙어 라켓을 놓게 되는 12월 16일까지 테니스를 친 시즌도 있었다. 물론 여름에는 태양의 열기가 감소하는 6시 이후가 될 때까지 운동을 시작할 수 없었다.[26]

1883~1884년 미국공사관에 최초의 테니스 코트가 조성된 뒤 수년 만에 정동의 외국인 주거지 여기저기에 "대부분 우수한 테니스 코트"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테니스의 유행을 증거하는 대목이다. 이들 코트에서 외국인 부인들이 친구들을 초대하여 테니스를 즐겼다. 여성들도 복식과 단체전 시합을 벌이며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3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아홉 달 동안 테니스를 즐긴 해도 있었다는 길모어는 가히 테니스광이라 할만하다. 당시 미국에서 테니스가 인기 있는 중산층 운동이었다고 하는데,[27] 서울에서도 서양인의 테니스 향유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

26) George W. Gilmore, *Korea from its Capital* XIV. Foreign Life in Korea,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and Sabbath-School Work, 1892, p.283(신복룡 역주, 『서울풍물지』, 집문당, 1999, 216쪽 참조).

27)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1884-191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62쪽.

길모어 뿐만 아니라 벙커와 헐버트도 테니스를 무척 좋아했다. 곧 언급하겠지만 서울 서양인사회에서 테니스 클럽으로 기능했던 서울유니언클럽의 발전에 벙커는 크게 기였다. 헐버트도 1890년 여름 서울에서 평양을 향하여 여행할 때 "서울에서 몇 달 동안 '반주일에 한번 테니스 치는 것(semi-weekley tennis)' 말고는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고서 조랑말을 타고 조선의 시골길을 무한정 가기란 무척 힘든 일일 수밖에 없다"고 여행의 어려움을 표현한 적이 있다.[28] 헐버트는 서울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테니스를 쳤다는 것이다. 뒤에서 언급할 것이지만 헐버트는 1902년 여름 서울의 핸디캡 테니스대회 남성복식조와 남성 단식에서 우승했으며, 그해 가을 열린 서울-제물포 테니스대회 단식에서 제물포의 윌리스를 이기기도 한 것을 보면,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한 지 10여 년 만에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양인 사이에 유행한 테니스 열기는 클럽의 조직화로 귀결되었다. 정동의 서양인들은 1888년 9월 오락과 운동을 목적으로 서울유니온클럽(Seoul Union Club)을 결성했다. 알렌은 "1888년 9월 서울유니언이 조직됨. 현 부지는 1890년에 구입, 현 건물은 1891년에 건축되었음"이라고 기록해 놓았다.[29]

서울유니온클럽 50주년이 되어 나온 회고에 의하면,[30] "옛 서울유니온 빌딩은 한국에 건축된 첫 번째 외국 스타일의 빌딩"이라 했다.[31] 빌딩에는 여러 가지 오락 및 운동 시설이 들어섰다. "유니온의 시설, 즉 클럽 하우스, 테니스 코트 그리고 볼링장을 이용했던 우리들은 그 선구자들, 즉 일찍이 열정을 다 바쳐 우리에게 남겨줄 유산을 만들었던 벙커·브라운 등등의 경험·정신·비전을 충분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즐기는 볼링장, 타일이 깔린 풀장, 스케이트 링크, 즐거운 클럽 하우스, 그리고 전기시설과 수도"도 차츰 설치되었다. "회원당 1년에 2달러를 걷어 우리들 각각을 위해

28) H. B. H., "Korea As Seen From The Saddle", *The Japan Weekly Mail*, July 4, 1891, p.21(김동진 옮김, 『말 위에서 본 조선』, 참좋은친구, 2021, 36쪽에서 확인했지만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29) H. N. 알렌, 김원모 편저, 『근대한국외교사연표』, 단대출판부, 1984, 128쪽.
30) J. L. Boots, "The Seoul Union 50th Anniversary", *The Korea Mission Field* 1939년 5월호.
31) 첫 번째 서양식 건물은 1887년 지어진 배재학당 건물이다. 1891년에는 영국공사관과 함께 서울유니온클럽 건물이 건립되었다.

그것을 온전하게 갖추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재원이나 경영 측면에서 기적적"이라고 회고했다.[32]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도 서울유니온클럽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것으로 보인다. 아펜젤러 전기에 보면,[33] "그는 서울사교연합회(Soul Social Union)를 만드는 것을 주도하였는데, 거기에는 테니스를 비롯한 야외운동을 위한 설비뿐만 아니라,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설도 있었으며, 가정잡지를 꽂아놓은 독서실도 있었다. 선교사들이라면 언제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거나 소책자를 돌려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고국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놀이와 운동과 다채로운 생활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랐다"고 기록되어 있다.[34] 선교사들도 휴가와 오락·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울유니온클럽에 테니스 코트가 설치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서울유니온클럽의 건물은 어디에 있었으며 테니스 코트는 어디에 어떻게 조성되었을까? 서울유니온클럽 50년 회고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서울의 첫 번째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첫 번째 규정을 기초했을 때, 그들이 첫 번째 클럽 하우스를 세웠을 때, 테니스 코트를 만들기 위해 폐궁의 오래된 연꽃 연못을 메우려고 그들이 수 톤의 진흙을 운반했을 때, 그들은 50년 뒤에 올 모습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35]

테니스 코트가 만들어진 곳은 "폐궁의 오래된 연꽃 연못"이라고 했다. 경

32) 벙커는 육영공원의 교사로 헐버트·길모어와 함께 입국했다. 육영공원은 오늘날 덕수궁의 남쪽에 있었고 나중에 그곳에 독일공사관이 들어섰다. 벙커는 1895년부터 1912년까지 배재학당에서 강의하고, 동시에 감리교 선교사로서 1926년까지 일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1932년 사망했는데, 1933년 서울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브라운(John M. Brown)은 1893년 조선의 총세무사로 초빙되어 1905년까지 활동했다.

33) William E. Griffis, *A Modern Pioneer in Korea, The Life Story of Henry G. Appenzeller*, Fleming H. Revell Co., 1912.

34) 이만열 편, 『아펜젤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208쪽.

35) J. L. Boots, "The Seoul Union 50th Anniversary".

운궁의 오래된 연못을 매립하여 테니스 코트를 만들었던 것이다. 서울유니온 클럽은 미국공사관 바로 앞 부지의 동쪽에, 그리고 그 서쪽에는 테니스 코트가 들어섰다.[36] 그 곳은 일제시기에는 정동정(貞洞町) 8번지에 해당한다.[37] 현재는 미국 대사관저에 편입되어 여전히 테니스 코트 2개 면이 설치되어 있고, 그 서쪽으로 정동극장이 위치하고 있다.[38]

### 2) 서울유니온클럽의 테니스 운동

서울유니온클럽의 회원들은 클럽 하우스와 테니스 코트에서 오락과 스포츠를 즐겼다. 제중원 의사 빈튼(Charles C. Vinton)이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출근을 거부하고 있을 때, 테니스를 치러나가면서 병원 열쇠를 가지고 나간 일이 있었다. 많은 환자들이 허탕치고 돌아갔다. 알렌은 선교본부에 편지를 써서 빈튼을 '테니스광(an enthusiastic tennis player)'이라면서 비난했다.[39]

서울유니온 회원의 클럽 활동에 대해서는 1897년의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서울유니온은 회원들의 오락과 사회적 문학적 진보를 위한 조직이다. 서울유니온은 궁궐에 인접한 정동 한복판에 벽돌 건물과 테니스 코트 3개 면을 넉넉히 설치할 만큼 넓은 운동장을 소유하고 있다. 봄과 가을에는 주기적으로 테니스를 치는데,

---

36) 김정동,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73쪽, 'The Chongdong Area at the turn of the century'. 이 지도에는 '세기전환기의 정동지역'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나 1930년대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유니온 50주년을 회고한 부츠(J. L. Boots)는 1939년 서소문 밖에 새로운 클럽하우스를 지어 이전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지도를 보면 서소문 밖에 점선으로 'Seoul Union Club'이라 표시되어 있어 지도는 1939년경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37) 飯米耕平, 『大京城精圖』, 至誠堂, 1936.

38) 당시의 테니스 코트 모습은 『알렌문서』(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R5-B5-F1-008, '1899년경 주한미국공사관과 주변 지역을 촬영한 건'); 홍순민, 『홍순민의 한양읽기 궁궐』 (하)(눌와, 2017, 484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제시기 서울유니온클럽과 테니스 코트의 모습은 『이화영상실록』(이화역사관, 2006, 61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39) 『알렌문서』 R3-L3-01-010, 1891년 7월 3일 '알렌이 엘린우드에게 제중원 진료 책임자 빈튼의 사임 문제에 대해 알리는 건'.

> 테니스는 지금까지 본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것 같다. 겨울에는 여성 회원들의 뛰어난 운영 하에 젊은 층과 노년층을 위해 독서・뮤지컬・강연, 그리고 오락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작년에는 유니온 룸에서 비숍 여사의 강연이 여러 차례 있었다. 회원은 외교관, 정부 및 해관관리, 서울의 민간 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직 회장 가운데는 미국 공사, 한국정부의 외국인 고문, 러시아 외교관, 총세무사 등이 있었으며, 현재의 회장은 법학박사인 브라운이다.[40]

서울유니온클럽은 문화단체였다. 오락, 문화 예술,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겨울에는 강연 등 실내에서 문화활동을 벌였다.[41]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지리학자로 한국을 네 차례나 방문했던 비숍(Isbella B. Bishop) 여사는 1896년 말 1897년 초, 즉 겨울 시즌에 유니온클럽을 방문하여 여러 차례 강연했다.[42] 스포츠는 테니스가 중심이었다. 클럽하우스 같은 건물을 소유하고 동시에 운동장에 코트 3개 면을 설치했으니 테니스 클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테니스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고, 봄・가을 회원들이 날짜와 시간을 맞추어 주기적으로 즐겼다. 1901년의 경우 "4월 18일 서울유니온 테니스 그라운드에서 올해 테니스 시즌이 시작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43] 테니스 시즌이 시작되었다는 표현은 테니스 운동과 경기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암시를 준다.

인용문에서 보면 서울유니온클럽의 회원은 외교관이나 한국 정부에 초빙된 외국인 고문, 기타 외국인 개인이었고, 회장은 회원 중 고위직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인용문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서울 정동의 선교기지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주요 구성원이었다.[44] 선교사들은 서울에 정

---

40) "Notes and Comments", *The Korean Repository*, 1897년 12월, p.480.

41) "Notes and Comments", *The Korean Repository*, 1896년 4월, p.87.
"서울 유니온의 여성들은 Graham 부인의 지도하에서 겨울 동안은 유니온의 실내 룸에서 금요일 오후 다과회를 열어 일련의 교양 모임을 개최했다. 이들 다과회에서는 독서회, 낭송회, 음악회, 그리고 기타 여러 형태의 연회와 오락회가 열렸다."

42) 이사벨라 버드 비숍 지음, 이인화 옮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1994 참조.

43) "News Calendar", *The Korea Review*, 1901년 4월, p.172.

44) 대한제국의 궁내부 고문관을 역임한 미국인 외교관 샌즈는 '선교사들의 테니스 코트(the missionarys' tennis courts)'라고 표현했다. William Franklin Sands, *Undiplomatic Memories* –

착하여 오랜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회원으로서의 경력이 길고 건강과 문화 활동을 더욱 절실히 필요로 했다. 클럽의 결성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앞장선 것은 앞에서 언급했다.[45]

서울유니온클럽이 선교사들과 외국인사회에 끼친 영향은 아주 컸다. 50년 회고를 통해서 그들은 이 클럽이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한국을 떠나는 회원들도 있었지만 해마다 10명 정도의 신입회원도 들어오면서 총 500여 명이 왔다 갔다고 한다.

> 금요일 오후에 벌어지는 한 게임의 테니스 경기나 한잔의 차를 통한 즐겁고 우호적인 동료의식에 의해 얻어지는 이득이 없었다면 이 나라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단축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일본인 및 한국인 클럽들과 반년마다 테니스 시합을 하면서 친밀한 경쟁의식에서 비롯되는 국제적 선의의 효과를 누가 잴 수 있겠는가? 선교사들, 회사원들, 영사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과 아이들이 완전히 이완한 채로 함께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이득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46]

처음에는 서양인끼리 테니스를 즐기고 시합을 벌였을 테지만 점차 일본인 클럽이나 한국인 클럽과도 반년마다 테니스 시합을 벌이면서 우의를 다졌다. 1939년 6월에는 서울유니온클럽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치렀다.[47] 그리고 이즈음 서소문 밖에 새로운 클럽 하우스를 짓고 이사하게 되었다.

---

*The Far East 1896-1904*, Whittlesey House, New York, 1930, p.98(W. F. 샌즈, 김훈 옮김, 『조선의 마지막 날』, 미완, 1986, 125쪽).

45) 서울유니온클럽과 서울클럽이 혼동되기도 하는데, 서울클럽은 1892년 결성된 외교관 중심의 외교관클럽이 1903년 2월 5일 개편한 것으로 외교관을 비롯하여 여러 직업의 외국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한 조직이다. 서울클럽은 중명전을 빌려 썼다. 草土, 「조선 있는 외국인 영사와 선교사들의 활동 현상」, 『삼천리』 제9권 제5호, 1937년 10월; H. N. 알렌, 김원모 편저, 『근대한국외교사연표』, 204~205쪽; 이순우, 『정동과 각국공사관』, 258~270쪽 참조.

46) J. L. Boots, "The Seoul Union 50th Anniversary".

47) *The Korea Mission Field* 1940년 2월호 사진.

## 4. 서울－제물포의 테니스대회

### 1) 서울의 핸디캡 테니스대회

1901년 6월 22일 인천 제물포의 각국공동조계 안에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Sabatin)이 설계한 제물포클럽(제물포구락부)이 문을 열었다. 실내에는 당구대를 두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독서실을 두어 강연회・토론회를 열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했다. 그리고 출입구 앞쪽 응봉산 기슭을 닦아 테니스 코트를 조성했다.[48] 제물포클럽이 탄생하기 이전에 인천에도 테니스 코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인천내리교회 존스(George H. Jones) 목사의 우각동 선교센터에 테니스 코트가 있었다고 한다.[49] 그 외에 인천 어디에 테니스 코트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제물포클럽이 조직되고 테니스 코트가 마련되자 서울의 서양인들도 자극을 받아 테니스 운동과 경기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902년 여름 차머스(J. L. Chalmers) 부부가 서울의 자기들 소유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다. 차머스는 1898년 인천해관장을 지냈고 이때는 서울의 총세무사 비서로 근무하고 있었다.[50]

> 차머스와 그 부인은 핸디캡 테니스 토너먼트를 곧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다. 세 그룹, 즉 남성 단식, 남성 복식과 혼합 복식으로 구분될 것이다. 이것이 서울 테니스의 재부흥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테니스는 서울에서 시도된 적 있는 야외 스포츠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유익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개항도시 간 토너먼트로 발전한다면 제물포의 다부진 선수들은 기왕

48) "News Calendar", *The Korea Review*, 1901년 6월, p.271. 거문도의 테니스 코트, 서울유니온클럽의 테니스 코트, 그리고 1910년대 제물포클럽 전면의 테니스 코트 사진은 이영호, 「테니스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나」, 『테니스 인 & 아웃』, 레인보우북스, 2022 참조.

49) 『알렌문서』 R3-L6-05-080, 1900년 7월 15일 '아들들에게 근황과 서울의 전차 사고 등 국내외 상황을 전하는 건'.

50) H. N. 알렌, 김원모 편저, 『근대한국외교사연표』, 185, 205, 293쪽.

의 굉장한 명망을 강화시킬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51]

서울 테니스의 재부흥을 기대한 점을 보면 그동안 서울에서는 테니스의 인기가 다소 시들해졌던 것 같다. 남성은 단식과 복식, 그리고 여성은 혼합복식으로 경기를 치르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여성 단식도 추가했다. 실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접어주고 하는 경기로 계획되었다. 오늘날 친선경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속칭 핸디 경기의 선구인 것이다.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과 경기 결과는 [표1]과 같다.

[표1] 1902년 서울 핸디캡 테니스 경기 참가자와 결과

| 분야 | 참가자 | 우승 |
|---|---|---|
| 남성 복식 | 드 라파이예르와 헐버트, 조던과 벙커, 스미스와 르페브르, 프램프턴과 분쉬, 발독과 쉬타인, 테이시어와 대이빗슨 | 드 라파이예르와 헐버트 |
| 혼합 복식 | 콜브란 양과 헐버트, 졸리 부인과 분쉬, 르페브르 양과 프램프턴, 벙커 부인과 대이빗슨, 브링크마이어 양과 드 라파이예르, 차머스 부인과 발독, 미쓰 웜볼드와 스미스 | 차머스 부인과 발독 |
| 남성 단식 | 드 라파이예르, 헐버트, 쉬타인, 스미스, 조던, 벙커, 르페브르, 프램프턴, 발독, 차머스, 테이시어, 데이빗슨 | 헐버트 |
| 여성 단식 | 벙커 부인, 차머스 부인, 브링크마이어 양, 르페브르 양, 콜브란 양, 졸리 양, 미쓰 웜볼드 | 차머스 부인 |

* 출처: "The Seoul Handicap Tennis Tournament", *The Korea Review*, 1902년 8월, pp.358~359
* 비고: 핸디를 적용한 상황과 3세트로 진행된 세트 스코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생략한다.

남성 참가자와 직업을 살펴보면,[52] 헐버트는 육영공원 교사로 근무하다가 귀국한 뒤 감리교 선교사로 다시 입국하여 배재학당 교사, 관립영어학교 교사를 역임하고, 수많은 한국관계 문헌을 출판하고, 한국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한 대표적인 친한파 미국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찍부터 테니스를 시작해 뛰어난 실력을 보유했는데, 자기가 발행하던 잡지 *The Korea Review*

51) "News Callendar", *The Korea Review*, 1902년 7월, p.318.

52) 참가자의 인적 사항은 알려진 사실들 외에는 『근대한국외교사연표』(H. N. 알렌, 김원모 편저), 『조선재류구미인조사록－1907년~1942년』(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자료총서 제14집, 1981)에서 조사했다. [표1]에는 참가자의 이름이 풀 네임으로 나오지 않아 정확한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에 관련 기사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벙커는 서울유니온클럽을 주도한 인물로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때는 배재학당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조던(Jordan)은 영국 총영사 및 대리 공사였다. 쉬떼인(Stein)은 러시아공사관의 서기인데 공사관 안의 테니스 코트에서 부부가 열심히 테니스를 즐겼다.[53] 러시아공사관 안에도 테니스 코트가 있었던 것이다. 분쉬(Wunsch)는 독일인 의사로 고종 황제의 시의(侍醫)였다. 발독(Baldock)은 성공회 의료선교사였다. 르페브르(Lefevre)는 프랑스공사관 서기관을 역임하고 경의선 철도감독을 맡았다. 프램프턴(Frampton)은 영어학교 교장, 데이빗슨(Davidson)은 영국인 세관관리였다. 드 라파이예르(de Lapeyriere)는 프랑스인으로 경의선 철도 기술자였다. 스미스(Smith)는 흔한 이름이어서 영국인 약사인지 불분명하다. 테이시어(Teissier)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여성 참가자는 벙커 부인, 차머스 부인, 르페브르 딸, 콜브란(Collbran) 딸, 브링크마이어(Brinckmeier) 딸, 졸리(Joly) 부인과 딸, 웜볼드(Wambold)였다. 콜브란은 보스트윅과 함께 경인철도사업에 관여하고, 서울의 전차사업과 상수도사업을 수행한 콜브란-보스트윅 회사 사장이었다. 콜브란 딸은 스무 살이 채 안 된 이해 가을 티프스로 사망했는데, 분쉬는 그녀와 테니스를 같이 쳤던 것을 회고했다.[54] 브링크마이어는 조선해관에 근무하다가 독일 총영사관 부영사가 되었고, 졸리 부인은 영국 인천 부영사 졸리의 미망인으로 왕궁의 교사, 웜볼드는 독신의 미국 북장로교 여선교사로서 정신여학교 교사였다.

테니스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선교사・외교관・교사・기업인・의사 등 다양했다. 부인과 딸들도 참여하여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경기가 되고 있다. 핸디를 잡아주면 혼합복식도 가능했다. 이렇게 테니스는 외국인사회에 아주 적합한 친선을 위한 스포츠로서 정착되었다.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 대회를 개최한 차머스 부인이 비록 핸디 경기지만 실력을 드러냈고, 헐버트는

53) 『알렌문서』 R4-L7-04-015, 1902년 6월 12일 '알렌이 모건에게 무어주교 습격사건의 처리 등 한국 상황에 대해 알리는 건'.

54) 리하르트 분쉬 지음, 김종대 옮김,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 학고재, 1999, 77쪽.

서울 테니스계에서는 고수의 면모를 보였다.

서울 핸디캡 경기를 개최한 차머스 부부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테니스 경기를 부흥시키는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55] 서울의 이 핸디캡 테니스 경기는 인천에서 제물포클럽이 조직되어 테니스 경기가 활성화된 데 자극을 받아 개최된 것이었다. 따라서 서울-제물포 사이의 테니스대회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전초전이기도 했다.

### 2) 서울-제물포 테니스대회

차머스 부부의 서울 테니스대회는 서울-제물포의 테니스대회 개최로 논의가 이어졌다. 1901년 6월 제물포클럽이 결성된 지 1년여가 지난 1902년 가을, 서울과 인천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지역의 명예를 걸고 테니스 경기를 벌이게 되었다.

> 한국에서 개항도시 간 운동경기대회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어떤 발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축하할 일이다. 제물포는 서울 테니스 선수들에 토너먼트 경기로 도전하는데 있어서 선수를 잡을 영광을 가진다. 우리가 보는 한, 두 개항도시는 실력이 아주 비슷하여 잘 어울려 시합은 아주 흥미로운 것이 될 것 같다. 제물포는 이미 정규 테니스클럽을 소유하고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서울의 선수들은 다소 조직화 되어 있지 않다. 만약 제물포가 이겨서 챌린지 컵을 가지게 된다면 물론 새로운 클럽 건물에 장식을 하게 될 것이지만, 서울 선수들이 승리한다면 그것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서울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서울이 시합에서 승리했을 때 그 문제를 토의할 충분한 시간은 있을 것이다. … 서울이 이긴다면, 비록 우승컵을 위한 건물을 지어야 할지 모르지만 이 컵을 놓을 곳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56]

---

55) "The Seoul Handicap Tennis Tournament", *The Korea Review*, 1902년 8월, p.358.
56) "Editorial Comment", *The Korea Review*, 1902년 8월, p.357.

한국의 서양인들은 주로 서울과 인천에 머물렀다. 두 도시 사이의 테니스 경기는 실력이 비슷하여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제물포에서는 정규 테니스클럽을 조직했고, 서울에는 테니스클럽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고 인용문은 지적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찍이 서울유니온클럽에 테니스 코트가 마련되어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은 많았다. 제물포팀에서는 제물포클럽 건물이 있어 우승컵을 놓을 수 있는데 서울팀은 어디에 놓을 것인가를 걱정하는 척 서울팀을 자극한다.

> 서울과 제물포 사이의 챌린지컵 테니스경기의 규칙이 분명하게 합의되었다. 서울 최상팀 4개 복식조가 제물포의 4개 복식조 최상팀과 우수한 순서대로 경기하고, 4인의 서울 최상 단식 선수가 4인의 제물포 최상 단식 선수와 맞붙는다. 각각의 경기는 3세트 중 2세트 승리로 결정될 것이다. 여덟 경기 각각은 1점이 되고 많은 점수를 딴 팀이 컵을 가져갈 것이다. 동률을 이룰 경우 더 많은 세트를 이긴 팀이 컵을 가져갈 것이다. 아직 서울 선수들은 조직하는데 고심하고 있는데 아마 경기가 거행되기 전 두 주 정도 걸릴 것이다. 제물포 클럽에서 선발된 선수들은 복식은 월리스(Wallace)와 맥코넬(McConnell), 팍스(Fox)와 사바틴(Sabatin), 월터(Walter)와 베넷(Bennett), 헨켈(Henkel)과 레미디오스(Remedios) 조이다. 서울 선수들은 아직 선발되지 않았다. 예선 경기 후 정해질 것이다.[57]

서울과 제물포 사이 최초의 테니스 경기는 날짜는 분명치 않은데 1902년 가을 개최되었다. 복식 4개조, 단식 4개조씩 실력에 비례하여 여덟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동률을 이루면 세트 차이를 고려하기로 했다. 제물포에서는 제물포클럽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복식조를 선발하여 호흡을 맞추기 위해 연습에 들어갔다. 서울팀은 선수가 많기 때문인지 예선 경기를 치른 후 출전 선수를 선발했다. 경기 결과는 [표2]와 같다.

57) "News Calendar", *The Korea Review*, 1902년 8월, p.360.

[표2] 1902년 서울-제물포 챌린지컵 테니스 대회 결과

| 번호 | 종류 | 팀 | 선수 | 1세트 | 2세트 | 3세트 | 승점 |
|---|---|---|---|---|---|---|---|
| 1 | 복식 1 | 서울 | 데이빗슨과 헐버트 | 3 | 6 | | 제물포 2-0 |
| | | 제물포 | 윌리스와 맥코넬 | 6 | 8 | | |
| 2 | 복식 2 | 서울 | 벙커와 질레트 | 3 | 6 | 4 | 제물포 2-1 |
| | | 제물포 | 월터와 베네트 | 6 | 4 | 6 | |
| 3 | 복식 3 | 서울 | 스미스와 테이시어 | 6 | 1 | 3 | 제물포 2-1 |
| | | 제물포 | 레미디오스와 헨켈 | 2 | 6 | 6 | |
| 4 | 단식 1 | 서울 | 헐버트 | 6 | 6 | | 서울 2-0 |
| | | 제물포 | 윌리스 | 4 | 4 | | |
| 5 | 복식 4 | 서울 | 차머스와 발독 | 3 | 2 | | 제물포 2-0 |
| | | 제물포 | 팍스와 사바틴 | 6 | 6 | | |
| 6 | 단식 2 | 서울 | 데이빗슨 | 2 | 1 | | 제물포 2-0 |
| | | 제물포 | 맥코넬 | 6 | 6 | | |
| 7 | 단식 3 | 서울 | 차머스 | 6 | 1 | 3 | 제물포 2-0 |
| | | 제물포 | 사바틴 | 4 | 6 | 6 | |
| 8 | 단식 4 | 서울 | 발독 | 6 | 2 | 6 | 서울 2-1 |
| | | 제물포 | 맥코넬 | 4 | 6 | 4 | |
| 합 | 8 게임 | | | | | | 제물포 6-2 승 |

* 출처: "News Calendar", *The Korea Review*, 1902년 9월, p.411

서울의 참가자는 데이빗슨, 헐버트, 벙커, 스미스, 테이시어, 차머스, 발독 등 핸디캡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외에 질레트(Gillett)를 포함하여 8명이었다. 질레트는 YMCA 초대총무로서 회원들에게 야구와 농구를 들여와 가르쳤으며, 105인 사건에 연루되기도 한 인물이다.

인천의 참가자는 맥코넬, 사바틴, 월터, 헨켈, 베넷, 월리스, 레미디오스, 팍스 등이다. 맥코넬은 해관에 근무하던 영국인인데 1905년 마지막 해관장을 맡았고, 식민지시기에도 인천에 내내 거주했다. 사바틴은 러시아 건축가로서 서울의 러시아공사관, 독립문, 경운궁의 중명전과 정관헌, 경복궁의 관

문각, 인천의 각국공원, 제물포구락부의 건축에 설계하거나 관여했다. 월터는 독일인으로 볼터(Wolter)로도 불리는데 세창양행을 경영했으며 인천에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제물포의 왕'이었다. 헨켈은 세창양행 간부사원으로 응봉산에 있던 그가 살던 주택이 유명했는데 6·25 때 폭격을 맞았다. 베넷은 광창양행을 운영한 사업가로 부인은 나가사키의 영국 상인 토마스 글로버의 딸이었다. 윌리스는 미국인으로 금광기술자이고, 레미디오스는 포르투갈 사람으로 금광에 근무했다. 인천의 참가자들은 서울과는 달리 기업인이 대부분으로 개항도시 인천의 도시적 특징을 드러낸다.[58]

제물포팀이 전체 스코어 6: 2로 서울팀을 물리치고 우승컵을 안았다. 서울팀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물포팀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남성들만 참가하여 진정한 실력을 겨룸으로써 친선보다는 경쟁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 여덟 경기 가운데 제물포가 여섯 번 이겨 챌린지 컵을 확보했다. 합의에 따르면 제물포가 3년 연속해서 이겨야만 그 컵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선수들이 1902년의 결과를 뒤집어 내년에 그 컵을 서울로 가져가려면 서로 협력하고 열심히 싸워야 할 것이다.[59]

3년 연속 승리하면 그 컵은 영원히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년 연속 승리 규정이나 내년 경기를 예고한 것을 보면 해마다 경기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 서울-제물포 챌린지컵 테니스 경기는 결판이 났는데, 뛰어난 플레이를 펼친 도전자들이 아주 공정하게 승리했다. 서울팀이 제물포팀에 압도당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서울팀이 패배한 원인을 설명하려 시도할 필요는 거의 없다. 만약 서울팀이 왜 압도당했는지 묻는다면, 꼼꼼하고 꾸준한 연습이 부족했다는 한 가지의 대답만이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첫 시합에서 제물포 복식팀이 이긴 것은 뛰어난

58) 이영호, 『개항도시 제물포』, 민속원, 2017 참조.
59) "News Calendar", *The Korea Review*, 1902년 9월, p.411.

> 개인 플레이가 아닌 세심한 팀 플레이 덕분이다. 서울 선수들은 질이 다른 공을 절반씩 섞어서 여러 경기장에서 연습을 해 온 반면, 제물포 선수들은 동일한 공을 가지고 한 경기장에서 연습했다. 서울 선수들의 체계적인 연습의 부족은 치유될 수 있는 일이며, 내년 봄 서울이 제물포에 도전할 때 이번 가을에 우리가 본 것 같은 일방적인 경기는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60]

제물포팀이 승리한 것은 꾸준한 연습, 신중한 팀 플레이, 동일한 공으로 한 경기장에서 연습한 조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테니스 공은 고가품인데 여러 경로로 종류가 다른 공들이 수입되었던 모양이다. 서울팀이 체계적인 연습을 한다면 내년 봄에 있을 대회에서는 팽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902년의 제1회 대회는 가을에 개최되었지만 제2회는 봄에 개최할 것으로 예정되었다.

제1회 대회에서 제물포가 승리함으로써 제물포에서는 테니스 열기가 타올랐다. 제1회 경기가 끝난 이후 제물포에서는 또 다른 테니스 토너먼트 경기가 개최되었다는 기사가 보인다. 여성 단식에서 레미디오스 딸이 우승했고, 혼합복식에서는 인천의 미국인 대 사업가인 타운센드(Townsend)의 딸과 맥코넬이 구성한 조가 우승했다.[61] 미국 공사 알렌은 "제물포는 테니스에 미쳤다"고 테니스 열기를 전했다.[62]

1903년에도 서울과 제물포의 경기가 계획되었다. 여름에 열리는 것으로 시간을 변경했다.

> 올여름 어떤 멋진 테니스에 대한 전망은 아주 밝다. 서울유니온은 두 개의 최상급 코트를 설치했고 이미 상당한 열의가 네트를 가로질러 표출되고 있다. 서울 테니스의 실력은 레이놀즈(W. D. Reynolds) 목사와 터너(A. B. Turner) 목사의 가세로 향상되었다. 반면 우리 라이벌인 제물포는 영국 영사관의 레이(A. H. Lay)라는

60) "Editorial Comment", *The Korea Review*, 1902년 9월, p.408.
61) "News Calendar", *The Korea Review*, 1902년 10월, p.459.
62) 『알렌문서』 R4-L7-06-005, 1902년 10월 5일 '알렌이 모건에게 서울의 상황을 알리는 건'.

인물의 실력 있는 협력을 확보했다. 1903년에는 두 개항도시 사이의 아주 멋진 경기를 볼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63]

1902년에는 서울팀이 잘 조직되어 있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차머스 부부의 핸디경기대회를 계기로 다시 부흥했지만, 제물포와의 경기에서 참패하여 자극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제물포클럽의 맞상대로 서울유니온클럽이 나섰다. 최상급 코트를 두 면이나 새로 설치했다. 또 서울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의 가세로 실력이 향상되어 1903년의 대회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소식이다.

1904년에는 러일전쟁이 발발하여 제물포와 서울에는 일본군이 주둔하는 등 정국이 어지러웠다. 서양인들이 한가하게 테니스대회를 열 형편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후 서양인 테니스대회의 상황을 전해주는 기록을 찾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서울유니온클럽 50주년 회고에서 보듯이 서양인들은 꾸준히 테니스를 즐겼고, 식민지시대에는 일본인 클럽이나 한국인 클럽과도 친선경기를 열어 친목과 유대의 스포츠문화를 형성했다.

## 5. 한국인의 테니스 수용

### 1) 론 테니스의 경우

한국인들은 테니스 경기를 어떻게 보았을까? 이규태의 칼럼을 보면 한국인들이 테니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스운 일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순종 황제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서울에 있던 외교관들이 어전 테니스경기를 베푼 일이 있었다. 그들은 땀을 흘리며 경기를 했다. 경기를 다 구경하고 나서 순종

63) "News Calendar", *The Korea Review*, 1903년 4월, p.170.

이 기껏 한다는 말이 “저렇게 힘든 일을 손수하다니 딱두하다. 하인들을 불러다 시킬 일이지”하며 혀를 찼다.64)

이런 일화는 현재 여러 책에 소개되어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유사하지만 상이한 이야기를 제중원 의사로 고종을 진료하고 세브란스 병원장을 지낸 애비슨이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어느 더운 여름날 오후, 우리 회원 중 한 분이 영어를 잘해 서양인과 교분이 있는 양반 청년 한 사람을 초대하여 테니스 경기를 보게 했다. 그는 관심 있게 경기를 지켜보았다. 시합하는 사람이 한 세트의 치열한 경기를 끝낸 후, 전신이 땀에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붉게 상기된 모습으로 관전자의 옆자리로 가 경기가 재미있더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아주 흥미롭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그처럼 힘든 일을 왜 하인들에게 시키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 질문은 정확히 그와 같은 계층의 모든 조선인들이 힘든 노력을 요하는 모든 체육 활동에 대해 갖고 있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에게는 운동경기가 무척이나 힘든 일로 보였던 것이다.65)

어느 때 이야기인지 확인할 수 없어 아쉬운데 운동을 하인에게 시키라는 유명한 이야기다. 테니스와 같은 체육을 힘든 노동과 동일시하는 조선 양반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1894년 갑오개혁에서 근대교육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점차 약화된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언제 서양의 론 테니스를 접촉할 수 있었을까? 애비슨이 1893년경 간호원에게 테니스를 가르친 적이 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간호원을 모집할 때,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테니스를 가르쳐 주기로 했다. 창문 너머로 테니스를 배우는 장면을 보니 딱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라

64) 이규태, 『개화백경』 5, 378~379쪽.
65) Oliver R. Avison, 황용수 · 장의식 번역 · 편집, 『구한말 40여년의 풍경』, 대구대학교출판부, 2006, 362쪽.

켓 잡는 것부터 어색함은 물론이고, 공을 쳐봤댔자 생각대로 나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역시 세월이 말해 주었다. 자세가 바르게 잡히고 고개를 똑바로 하여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서, 미소 지을 줄도 알게 되었다"라고 회고한다.[66]

서양인이 도입한 론 테니스는 그들이 세운 기독교계 학교에도 소개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기독교계 학교에서는 근대교육을 실시하면서 꼭 체육과목을 설정했다. 테니스도 근대학교에서 체육교육을 시작하면서 보급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

정동 서울유니온클럽 건너편에 있던, 한국 최초의 서양식 학교인 배재학당의 역사책을 보면, "1900년 넽(망)도 없이 새끼줄을 매고 널판 조각 라켙을 가지고 정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배재 정구의 시작이었다"는 기록이 나온다.[67] 근거는 없다. '정구'가 론 테니스를 의미하는지 일본식 정구를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이고 1900년이라면 대한제국이 일본을 견제하던 시기여서 일본식 정구가 도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론 테니스를 모방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통감부와 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일제가 교육과정을 통제했기 때문에 기독교계 학교라 하여 서양식 론 테니스를 수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제시기에 들어가 이화여학교와 정신여학교에 '정구반'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들 기독교계 학교에 보급된 정구가 론 테니스인지 일본식 정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2) 일본식 연식정구의 도입

일본식 정구는 통감부시기에 도입된다. 1908년 4월 18일 탁지부 관리들이 회동구락부(會洞俱樂部)를 조직하고 5월 2일 미창정(米倉町)에 정구 코트를 마련해 여흥식(餘興式) 경기를 개최한 것이 공식경기의 시초라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근거도 없고 내용도 불충분하다. 한국인이 주도한 테니스 경기가

66) 『구한말 40여년의 풍경』, 489쪽.
67) 『배재 80년사』, 배재학당, 1965, 184쪽.

아닌 것은 분명하다. 1908년이면 대한제국 정부 각부 차관 이하 관리로 대거 일본인이 등용되었을 시기다. 이때의 탁지부 관리라면 일본인을 의미할 것이다. 일본측의 자료에도, "정구는 일찍부터 수입되어 청년 남녀의 경기로서 상당히 보급되어 있었던 것이고, 창시자는 경성전기주식회사 전무 무샤켄조(武者錬三)"라고 되어 있다. 무샤는 동경고상시대부터 유명한 선수였는데 한국에서 취직하여 정구를 보급하는데 앞장섰다고 한다.[68]

1910년대 식민지시기에 들어가 정구는 야외운동으로 야구와 함께 널리 보급되었다. 1911년 11월 5일 경성일보사가 우승기를 제공한 제1회 경용(京龍)정구대회가 용산 코트에서 거행된 이후 정구 발전이 촉진되었다. 일본인들은 개항 이후 먼저 서울 명동 일대에 거류지를 형성했고, 러일전쟁 이후 일본군대를 중심으로 용산에 신시가지가 형성되었다. 이들 일본인 거주지에 각종 직장 정구부와 지역 구락부(클럽)가 조직되어 정구를 즐기며 시합을 벌였다. 경성팀과 용산팀의 경기는 매년 봄・가을 정기적으로 교환경기로 치러졌는데 용산팀의 연승으로 우승기를 영구히 소유하게 되자 경성일보사가 지원을 중단했다. 1916년 경성팀과 용산팀의 대항경기가 재개되자 우승경쟁은 더욱 격해졌다. 감정이 경기장 밖으로 흘러 지역 간 대립이 일어나기도 했다. 1917년에는 조선신문사가 새롭게 정구대회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1918년 가을에는 경성정구회가 조직되어 경성과 용산의 15개 정구단을 통합했다. 1919년 2월에는 경성정구단과 경성야구협회를 합동하여 조선체육협회를 조직했다.[69] 이들 조직적 활동은 모두 일본인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서울 뿐 아니라 인천・대구 등 일본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전국에 정구 코트가 조성되고 정구구락부가 결성되어 널리 확산되어 갔다. 정구와 함께 야구도 보급되었지만 어떤 지방이든지 정구경기가 가장 성행하고 가장 인기가 높았다.

---

68) 大島勝次郎, 『朝鮮野球史』, 京城: 朝鮮野球史發行所, 1932, 6쪽 및 123쪽(오시마 카츠타로우 저, 손환・하정희 역, 『조선야구사』, 대한미디어, 2016).

69) 大島勝次郎, 『朝鮮野球史』, 7~9, 28~35, 124~127쪽; 유민영, 「과학과 예술」, 『신편한국사』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국사편찬위원회, 2002, 336~337쪽.

> 이르는 곳마다 정구는 행해졌다. 테니스 코트도 많게 되고 각 학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각 관청·은행·회사 등 다수의 사람이 근무하는 곳에서는 테니스 코트를 만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인원의 시합도 항상 열리고, 정구는 가장 일찍부터 보편화하고 대중화했던 것이다.[70]

1920년대에 들어가면 전국의 한국인 학교와 한국인 구락부에도 정구가 보급되어 전국대회가 개최되었다. 1920년 6월 20일 인천체육구락부 주최로 인천 각 단체 연합정구대회가 열렸다.[71] 조선체육회 주최 제1회 전조선정구대회는 1921년 10월 15~17일 보성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고, 제2회 대회는 1922년 5월 20~22일 보성고보에서 열렸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일본에서는 연식정구가 보급되었고 론 테니스는 보급이 지체되었다는 점이다. 1900년 도쿄에서 론테니스구락부가 탄생한 후, 1913년에 이르러 국제선수권에 출전하기 위해 론 테니스도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게이오대학을 시작으로 이후 주요 학교들이 론 테니스를 채용했다.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론 테니스는 연식정구에 비해 훨씬 늦고 미약했다. 연식정구가 앞서가고 론 테니스가 뒤따르면서 병행, 경쟁하는 형국이었다. 반면 서양인은 일본에서든 한국에서든 론 테니스를 즐겼다. 식민지시대에 한국인도 테니스 경기에 참여했지만 한국인이 주체가 된 테니스는 론 테니스든 연식정구든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 6. 맺음말

한국 테니스의 기원과 서양인의 테니스 향유에 대해 실증적 자료를 추적하여 정리해 보았다.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한국에 도입된 테니스는 서양인이 즐긴 론 테니스와 이를 변용한 일본식 연식정구의 두 계통이라는 점이다.

---

70) 大島勝次郎, 『朝鮮野球史』, 57쪽.
71) 『동아일보』, 1920년 6월 23일.

한국에 들어온 서양인의 테니스 향유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테니스 코트는 어디에 조성되어 누구에 의해 도입되었는지 추적했다. 푸트가 꾸민 한옥 미국공사관 정원에 론 테니스 구장이 처음으로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독일인 고문관 묄렌도르프도 일찍이 테니스 코트를 만들었다고 하므로 그 정확한 시기가 밝혀지면 최초의 테니스 코트는 바뀔 수도 있다. 한국체육사학계의 통설인 개화파 김옥균 도입설은 근거가 없다. 어쨌든 영국에서 야외의 잔디에서 테니스가 시작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한국에도 상륙했다. 이후 서양인이 정착한 서울 정동에는 여러 곳에 테니스 코트가 조성되었다. 1888년 결성된 서울유니온클럽은 미국공사관 앞의 공원부지에 테니스 코트 3개 면을 조성하여 회원들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는 스포츠로 테니스 운동을 활성화했다. 당시 테니스는 남녀를 불문하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서양인들이 가장 즐기는 스포츠였다.

인천의 경우, 1899년 우각동에 인천내리교회 존스 목사의 선교센터에 테니스 코트가 조성되어 있었다. 일찍부터 서양인들이 테니스 코트를 조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다른 곳은 확인되지 않는다. 1901년 인천에 제물포클럽(제물포구락부) 건물이 건축되면서 출입구 앞쪽 응봉산 기슭에 테니스 코트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1902년부터 서울팀과 제물포팀의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는 스포츠였던 테니스가 외국인 거주 도시 사이의 경쟁적 대회로 발전했다. 테니스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던 헐버트가 자신이 간행하던 잡지에 테니스 대회의 경과와 결과를 자세히 소개해 놓아 개화기 서양인의 테니스 향유에 대해 스케치할 수 있었다.

한국 근대문물은 서양에서 직접 수입하기도 하고 일본을 통해 변용된 형태로 도입되기도 했는데, 테니스의 경우 서양의 론 테니스가 먼저 들어오고 식민지화가 되면서 연식정구가 보급되어 병립했다. 개화기 서양인이 도입하여 즐긴 론 테니스는 한국 테니스 역사의 전사(前史)이면서, 다른 한편 장소성(場所性)의 측면에서는 한국 테니스의 기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이 주체가 된 테니스는 론 테니스든, 연식정구든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 ▌참고문헌

金玉均, 『甲申日錄』.
송병기 역, 『국역 윤치호일기』,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 Review*.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국사편찬위원회).
『알렌문서』(한국학중앙연구원 DB).
김원모 완역, 『알렌의 일기』, 단국대학교출판부, 1991.
H. N. 알렌, 김원모 편저, 『근대한국외교사연표』, 단대출판부, 1984
飯米耕平, 『大京城精圖』, 至誠堂, 1936
大島勝次郎, 『朝鮮野球史』, 京城: 朝鮮野球史發行所, 1932(오시마 카츠타로우 저, 손환・하정희 역, 『조선야구사』, 대한미디어, 2016).
『조선재류구미인조사록－1907년~1942년』, 『한국학자료총서』 제14집,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1981
『배재 80년사』, 배재학당, 1965.
『이화영상실록』, 이화역사관, 2006.

George W. Gilmore, *Korea from its Capital*,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and Sabbath-School Work, 1892(신복룡 역주, 『서울풍물지』, 집문당, 1999).
Alfred E. J. Cavendish,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 Old and the New*,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893.
William E. Griffis, *A Modern Pioneer in Korea, The Life Story of Henry G. Appenzeller*, Fleming H. Revell Co., 1912(이만열 편, 『아펜젤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Mary V. Tingley Lawrence, *A diplomat's helpmate: how Rose F. Foote, wife of the first U.S. Minister and envoy extraordinary to Korea, served her country in the Far East*, San Francisco: H.S.Crocker Company Publishers, 1918.
William Franklin Sands, *Undiplomatic Memories－The Far East 1896-1904*, Whittlesey House, New York, 1930(W. F. 샌즈, 김훈 옮김, 『조선의 마지막 날』, 미완, 1986).
Fred C. Bohm and Robert R. Swartout, Jr. ed, *Naval Surgeon in Yi Korea; The Journal of George W. Woods*,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4.

묄렌도르프 부부 지음, 신복룡・김운경 옮김, 『묄렌도르프 문서』, 평민사, 1987.
이사벨라 버드 비숍 지음, 이인화 옮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1994.
리하르트 분쉬 지음, 김종대 옮김,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 학고재, 1999.
Oliver R. Avison, 황용수・장의식 번역・편집, 『구한말 40여년의 풍경』, 대구대학교출판부, 2006.
김인수 옮김, 『헤론 의사의 선교편지』, 쿰란출판사, 2007.

H. B. H., “Korea As Seen From The Saddle”, *The Japan Weekly Mail*, July 4, 1891(김동진 옮김, 『말 위에서 본 조선』, 참좋은친구, 2021).

草土, 「조선 있는 외국인 영사와 선교사들의 활동현상」, 『삼천리』 제9권 제5호, 1937년 10월.

J. L. Boots, “The Seoul Union 50th Anniversary”, *The Korea Mission Field*, 1939년 5월.

S. J. Whitwell, “Britons i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41, 1964, p.54, 부록 Extracts from an Article by Surgeon A. G. Wildey, R.N. Appearing on Page 162 of The Graphic for 12 February 1887.

Robert Neff, “Life at Port Hamilton during the Preventive Occupation, 1885-87”,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79, 2004.

문화콘텐츠닷컴 홈페이지.

공익재단법인 일본테니스협회 홈페이지.

이규태, 『개화백경』 5, 신태양사, 1969.

_____, 『한국인의 생활구조』 1, 조선일보사, 1984.

곽형기, 『근대 학교체육의 전개양상과 체육사적 의미』,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이학래, 『한국근대체육사연구』, 지식산업사, 1990.

이인숙, 『대한제국기의 사회체육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이학래 외(곽형기・이진수・임영무), 『한국체육사』, 지식산업사, 1994.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1884-191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이순우, 『정동과 각국공사관』, 하늘재, 2012.

이영호, 『개항도시 제물포』, 민속원, 2017.

홍순민, 『홍순민의 한양읽기 궁궐』 하, 눌와, 2017.

문영현, 「축구사－蹴球에 대한 史的 片貌」, 『학교체육』, 1966년 11월호, 대한학교체육회.

이인숙, 「근대문학과 예술」, 『신편한국사』 45권 신문화운동 I, 국사편찬위원회, 2002.

이영호, 「거문도가 경험한 제국주의와 근대」, 『도서문화』 40,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6.

한승훈, 「변경의 접촉지대 삼도(三島), 그리고 거문도(巨文島)의 탄생」, 『조선시대사학보』 83, 조선시대사학회, 2017.

김혜승, 「테니스(정구)」, 『서울체육사』 제1권 ‘체육의 역사’, 서울역사편찬원, 2019.

이영호, 「테니스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나」, 『테니스 인 & 아웃』, 레인보우북스, 2022.

# The introduction and enjoyment of tennis by Westerners During Korea's Enlightment Period

Lee, Young-ho*

Modern culture in Korea unfolded in the manner of accepting Western civilization on the basis of traditional culture. In some cases, Western civilization was brought in immediately from the West, while in other cases, it was brought in by way of Japan in an altered form. As for modern sports which originated from the West, in many cases they were directly adopted mainly through protestant missionaries and mission schools. This was the case for ball games, such as soccer, baseball, basketball, etc., which are team competitions in nature. However, in the case of tennis, the direct route from the West and the altered route via Japan co-existed. Thus, the sport of tennis which was introduced in Korea consisted of two lines; lawn tennis, which was relished by Westerners who came to Korea, and soft tennis, which was the style of tennis altered by Japan.

First, the Western-style lawn tennis was introduced by Lucius H. Foote, the first Consul General of the US to Korea. There is no foundation for the common view taken by academic circles of Korea's sports history that tennis was introduced by Kim Ok-gyun, a proponent of the enlightenment movement. The first tennis court was built in the yard of a Hanok building which Foote renovated into the American Legation. Afterward, tennis courts were created in various locations in Jeong-dong, Seoul, where Westerners settled. The Seoul

* Inha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Union Club, which was established in 1888, created three tennis courts in the park in front of the American Legation, encouraging members to enjoy the sport.

Second, it is likely that tennis courts would have been built in open port Chemulpo, where Westerners resided from early on, but there is not much available information. The Chemulpo Club, which was organized by the Westerners in 1901, created a tennis court and sparked a tennis boom. From 1902, the Westerners in Seoul and Chemulpo formed teams and held tennis competitions. Tennis, a sport that promoted amity and friendly ties, developed into a competitive contest between cities where Westerners lived.

Third, the Japanese style soft tennis was born by creating soft rubber balls in order to lessen the burden of importing tennis balls which were consumable goods. Japanese people who came to Korea as Residency-General officials introduced soft tennis in Korea around 1908 and popularized it in the 1910s as a field sport, along with baseball.

In Korea, lawn tennis of the West was demonstrated first, and then, soft tennis was diffused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and thus the two versions co-existed. It can be said that this is the pre-history of Korea's tennis history in that the principal agents were foreigners, but in terms of placement, it can be evaluated as the origin of tennis in Korea. Be it lawn tennis or soft tennis, Korea's tennis history led by Koreans as the principal agents unfolded in earnest after Korea gained independence from Japan.

**Key words** : lawn tennis, soft tennis, Kim Ok-gyun, Lucius H. Foote, P.von Möllendorf, The Seoul Union Club, The Chemulpo Club

논문투고일 : 2022년 1월 5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2월 7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2월 16일